

독일 루르지방의 기악교육 장려 프로젝트의 학문적 · 교육적 의미

장 은 연*

본 논문은 2003년 8월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독일의 루르 공업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Jedem Kind ein Instrument)'라는 음악장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음악교육적 효과와 학문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악관련 과목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프로젝트 수업이 갖는 음악교육적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주제어 : 음악장려정책, 악기수업, 학문적 동반연구, 특기적성 음악교육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

1. 프로젝트의 생성과정
2. 프로젝트의 성격과 특색
3. 프로젝트의 내용

III. 프로젝트의 학문적인 동반연구

1. 프로젝트 수업에 나타난 어린이들의 변화
2.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

IV. 프로젝트의 교육적 성찰

1.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의 음악교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

V. 나오는 말

*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州)에 위치한 루르(Ruhr)지방은 라인(Rhein) 강의 기적을 일으킨 공업지역으로 ‘천 개의 용광로의 땅(das Land der tausend Feuer)’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외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루르지방에 대해 문화적인 시설과 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루르지방은 그 중심도시인 에센(Essen) 시와 함께 2010년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Kulturhauptstadt)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Jedem Kind ein Instrument)’라는 음악교육 프로젝트를 지역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와 음악학교¹⁾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음악수업으로 초등학교에서 음악학교의 전문교사가 악기에 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정규 음악수업 이외에 개설되는 음악수업이며 어린이는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한다.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문화부와 GLS 신탁회사의 미래재단 교육부²⁾ 그리고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후원 하에 실시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처음 2003년 루르지방의 한 도시인 보쿰(Bochum) 시(市) 시립음악학교가 발기한 프로젝트는 보쿰 시의 몇몇 초등학교가 도입한 이후 점차 루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만 5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그 파급효과는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독일의 음악학교(Musikschule)는 공교육 제도권 밖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위한 사회음악교육의 기관으로서 기초적 음악교육과 연주, 음악영재 발굴과 육성, 음악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이성울, 2005, P. 344).
- 2) GLS Treuhand e.V.(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 기부와 용자를 위한 공동신탁은행)독일 루르공업지역에 위치한 금융대기업으로 문화, 교육 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한다. 2006년 한해에 약 6.900만 유로(약 1100억원)를 공공사업과 교육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별히 예체능 과목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전문 강사진들로부터 다양한 강좌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 루르지방에서 짧은 기간 내에 그 규모가 급성장한 음악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통한 음악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우리나라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적용방안을 숙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공교육에서 예체능 교육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독일의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효과와의 증가를 보여준 좋은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공교육에서 음악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전문음악교육은 전적으로 음악학교에서 독립되어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는 사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전문음악교육과 일반음악교육의 협동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프로젝트의 발생과정과 성격을 밝히며 프로젝트를 동반하는 학문적 연구팀이 발표한 음악교육적 의미를 보고한 후 우리나라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의 성격과 비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음악교육도 교실에만 머무르는 교과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악 교육효과를 가시화시키고 사교육과의 거리를 좁히는 과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II.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

1. 프로젝트의 생성과정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출발은 2000년 GLS 신탁관리회사 산하 미래재단 교육부의 마티아스 리페(M. Riepe) 사장과 보쿰 시립음악학교 교장 만프레드 그루넨베르그(M. Grunenberg)의 대담에서 비롯됐다. 처음 이들은 보쿰 시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보쿰 시립음악학교와 미래재단 교육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계획을 착수하기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GLS 회사는 회사 소유의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였으며 그 수익이 프로젝트 기금 마련의 초석이 되었다.

2003년 8월부터 보쿰 시 10곳의 초등학교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지겐(Siegen)³⁾ 대학교의 마리 루이제 쉘텐(M. L. Schulten) 교수와 뮌스터 시의 베스트팔렌 빌헬름 대학교의 베커스 박사연구팀(Dr. R. Beckers & Dr. E. Beckers)은 프로젝트를 학문적으로 동반하여 연구할 것을 위임받는다. 쉘텐 교수의 연구팀은 특히 프로젝트를 위한 학문적인 조언과 질적 평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학문적 동반연구가 담당하는 조언과 질적 평가 외에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적인 과제는 2005년 발족된 프로젝트 본부에서 총괄한다. 실제적인 업무로는 루르지방의 각 지역 음악학교에 음악교육에 관한 모든 중요한 조언과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전문음악교육의 일반 음악교육으로의 전환에 관한 범지역적인 과제를 의미한다. 그 밖에 프로젝트 본부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음악교사를 위한 수업자료를 준비한다.

3)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남쪽에 위치한 대학도시 이름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에 기존의 음악수업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음악교육에 관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⁴⁾

프로젝트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06/07 학년도에 보쿰 시의 61개 초등학교 중 32개 학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총 57명의 음악학교 교사가 배정되었다. 이들 초등학교의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1학년 739명, 2학년 365명으로 보쿰시 1학년의 22.2%, 2학년의 11.3%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www.jedemkind.de).

2007/08 학년도에 이미 프로젝트 수업은 33개 루르지역 지방도시 중 223 곳의 초등학교 72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루르지방의 전체 초등학교와 10개의 중학교 과정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와 중앙정부의 문화재단은 이미 1000만 유로(약 160억원)를 지원하였다. GLS 미래재단 교육부도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전체에 확산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2. 프로젝트의 성격과 특색

음악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프로젝트 음악수업은 차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계획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성 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은 차세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어린이가 처한 사회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대 교육이념 중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초등학교시기에 소홀이 다루어진 것을 이후에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시기에 어린이들의 능력⁵⁾을 최대한

4) 프로젝트 본부의 홈페이지는 www.jedemkind.de이며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안내와 조언을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음악교육을 통한 인지적, 사회적, 반사적,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

개발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두뇌발달연구와 발달심리학은 최근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음악활동이 모든 어린이의 인지적, 반사적, 사회적 능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악기연주는 인간의 가장 복합적인 활동 중의 하나로 지성, 기능, 감성이 모두 협조하여 수행된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이다(www.jedemkind.de).

독일에서 2004년 실시된 ‘청소년 문화측정(Jugend Kulturbarmeter)⁶⁾’ 연구에 따르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단연 높은 시기는 바로 14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문화에 대한 관심여부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의 문화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이들이 어린 시절 누렸던 문화적 혜택의 정도에 따라 문화와의 접촉에서 반응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부모의 문화에 대한 관심유무와 교육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다.⁷⁾ 따라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루르지방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일반 학교음악수업 외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음악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고안되었다. 프로젝트의 참가대상자는 보쿰 시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로 음악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린이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수업료는 첫 해의 악기입문 수업은 최고 월 10 유로(약 1만 6천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부터 무상교육이며 두 번째 해의 악기교습 수업료는 최고 25유로 그리고 3, 4 학년의 악기교습과 양

6) 독일의 중앙문화연구단체(Zentrum für Kulturforschung)가 청소년의 문화적 환경과 수준을 조사한 연구이다.

7) 프로젝트의 실시 당시 저교육층 부모의 자녀 중 25세의 17%가 연극, 미술관, 박물관, 연주회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실이 나타났다.

상블 수업을 위한 수업료는 월 최고 35유로이다. 이조차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할인 또는 면제혜택이 부여되어 누구나 수업에 참여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3. 프로젝트의 내용

1) 프로젝트 수업의 내용

프로젝트는 음악과 관련된 활동, 특히 ‘적극적인 음악하기’가 어린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수많은 연구사례와 결과를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정규수업 이외에는 음악적 경험의 기회가 소수의 한정된 어린이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악기를 통하여 직접적인 음악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수업과정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2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나 2006년부터 4년으로 확대되었다.⁸⁾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수업의 유형은 놀이와 악기연습 사이의 음악수업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중점은 악기에 관한 수업으로 첫 해와 두 번째 해의 수업이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 우선 기초적인 음악교육 안내는 1, 2학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첫 해에는 악기에 대한 안내를 일반적으로 받으며 두 번째 해부터는 한 가지 악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업 연도에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한 음악수업을 받는데 다양한 악기를 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지금까지 행해진 기초적인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요소의 설명에 비하면 내용이 단순하지만 악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음악교육과 차이점이다.

- 1학년: 첫 해에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고 음악과 놀이를 통해 악기와 친숙해지도록 인도한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그

8) 처음에는 2년 과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프로젝트 수업의 성공적인 결과로 전체 초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4년 과정이 채택되었다.

림 그리기 등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자, 리듬, 악보 읽기 등을 익힌다. 수업의 내용은 ‘고전악기’가 중심인데 어린이들이 수업에서 사용되는 실제 악기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스스로 연구하도록 한다.

수업에 사용되는 악기는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아코디언,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호른, 트럼펫, 트럼본, 만돌린과 이민자들의 자국 악기 중 한 가지 등으로 수업에서는 무엇보다 ‘음악하기’의 기본은 듣기가 최우선임을 알게 한다.⁹⁾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제공된 모든 악기의 종류와 구조를 익히도록 유도한다. 음악교사가 먼저 악기시범을 보이면 어린이들은 시험해 보고 따라한다. 그런 다음 소리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모조악기를 만드는 방식 등이다. 따라서 전체 과정은 음악을 듣고 음악을 알며 스스로 시험하고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음악수업은 어린이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방향의 접근이 시도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학습에 따라 다양한 감각이 길러지게 된다.

- 악기로부터 어떤 느낌이 드나?
- 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나?
- 악기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나?

참고로 효과적인 학습조건으로서 첫 해의 프로젝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그룹의 평균인원은 19명으로 11명에서 30명의 인원이 유동적이다 (Schulten, 2007, pp. 9-10).

• 2학년: 두 번째 해에는 악기를 배정 받아 ‘악기와의 집중적인 만남’을 시작한다. 어린이들은 첫 번째 해에 익힌 악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악기를 취향에 따라 선택한 후 악기교습을 그룹별로 받는다. 기존의 일반적인 의미의 그룹 악기교습과 구별되는 점은 기능습득이 아닌 놀이와 연관된 수업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발달 상태에 적합한 수업과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악기수업에 대한 동기여부는 실력향상과 악기의 성공적인 연주에 집중되나 이

9) 피아노, 전자악기, 드럼 등은 제외된다.

프로젝트에서 교사들은 일정한 시기에 어린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음악을 통해 터득하도록 지도한다.¹⁰⁾ 각 프로젝트의 그룹은 그 연주 실력이 매우 상이하며 그중 몇몇 그룹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음악학교의 악기연주 그룹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이다. 악기그룹은 평균 한 그룹이 5명으로 구성되며 가장 많은 그룹은 리코더의 11명, 작은 그룹은 플루트의 2명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그룹 악기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은 집중적인 수업과 동시에 일대일 교습의 단점을 보완한 수업을 받는다. 총 13가지의 다양한 악기수업이 제공되며 현악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수업이 실시된다. 소규모의 그룹교습과 앙상블 연주를 통해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공동으로 음악하기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수업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연습을 위한 대여도 가능하다. 3학년부터 어린이들은 악기수업과 'Kunterbunt(다양한 색)'로 불리는 앙상블 연주를 병행하며 이 앙상블은 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서 학년말에 대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하는 이유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이외에 대외적인 명분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2) 음악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간의 협동수업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음악수업은 각 지역 음악학교의 음악교사와 각 초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시립단체와 공립학교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형식은 이 프로젝트가 지닌 매우 독특한 구조적 특징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초등학교의 정규 음악수업과 음악학교의 음악교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프로젝트 수업은 일반 학교 및 음악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팀 수업, 소그룹과 대그룹, 초

10) 음악교사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어린이들이 그룹악기 연주를 통해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능발달위주의 악기수업을 지양한다는 점이 일반 음악학교의 수업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룹형태의 수업을 담당하는 음악교사 모두를 포괄한다.

여기서 음악학교와 초등학교 간의 공동작업은 조직적인 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음악수업이 음악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행된다는 점과 초등학교의 조직력과 지도방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지도방법과 조직력, 그리고 참여도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업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요소로서 어린이들에게 가정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¹¹⁾ 또한 초등학교는 이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에 미친 음악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기회로 삼는다. 마찬가지로 음악학교 교사들도 초등학교 내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의 규칙을 따르며 자신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두 기관은 조직이나 구조뿐 아니라 팀 수업을 구성한다. 프로젝트의 1학년 수업에 적용되는 교수방법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그룹 내의 팀 수업은 더욱 중요하다. 음악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팀 수업 형식은 1학년 프로젝트 수업 39개 중 25개 그룹에서¹²⁾ 운영되고 있으며 2학년의 악기교습 수업에서는 팀 수업이 제외된다. 실제 악기와 교류는 어린이가 악기를 만지고 직접 연주하며 소리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¹³⁾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어린이의 동기유발과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 실제적으로 음악학교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악기지도를 중점적으로 맡아하며 기초음

11) 전문음악교육 기관인 음악학교는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일종의 사교육이기 때문에 일반학교가 갖는 조직력, 결속력 또는 통일된 지도방법 등이 결여되어 있다. 개인교습과 각 음악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수법과 커리큘럼에 의해 음악학교 학생들은 교육받는다. 또한 음악에 대한 개인적 차이는 각 가정의 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해 뚜렷이 나타난다.

12)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함.

13) 어린이들이 실제 악기를 소리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집중력,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이를 수행하기까지 실제적으로 음악적인 지도보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팀수업을 통한 전격적인 지원이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다.

악이론은 초등학교 교사와 공동으로 지도한다. 그 밖의 어린이들을 통솔하고 보살피는 임무는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한다. 초등학교 교사의 팀 수업 참여를 통해 학교 내 프로젝트 수업의 위상이 높아지며 다시 어린이의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밖에 두 교사들은 상호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므로 팀 수업은 교사 자신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Schulten, 2007, pp. 11-12).

Ⅲ. 프로젝트의 학문적인 동반연구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는 대학의 연구팀과 연계하여 학문적인 연구를 동반하여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지겐 대학교의 슐텐 교수와 뮌스터의 베스트팔렌 빌헬름 대학교의 베커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일차적인 검증을 받았다. 학문적 동반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가 실시하는 음악장려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그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학교 교사와 총 아홉 번의 개별 인터뷰를 하였고 32명의 음악학교 교사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44명의 학부모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설문지에 답변하였고 각 연령대에서 선발된 42명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있었으며 12번의 수업참관이 실시되었다. 동반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음악학교 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학부모의 높은 수용자세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의 악기 연주과정과 직접경험을 통해 드러난 교수방법의 효율성이 인정받았다.

나아가 연구팀은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와 음악학교 간의 긴밀한 협조, 모든 그룹 내의 팀 수업에 관한 안내와 각 악기그룹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어린이들은 프로젝트 음악수업을 통해 음악적인 면과 음악 외적인 면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음악

에 대해 흥미를 나타냈으며 나아가 음악에 더욱 깊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겨난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은 어린이들의 장래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지는 음악 기초이론 교육은 이제까지와 달리 실제 악기의 운용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정규 음악수업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추천되는 요소임을 연구팀은 밝히고 있다.

프로젝트의 학문적인 동반연구는 GLS 신탁회사의 미래재단 교육부가 후원하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참여하는 음악학교 교사들이 학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반연구는 우선적으로 2008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연구팀에 의한 학문적 지원은 교사들이 다양한 형식의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상호간 경험의 교환을 통해 교수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예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얻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1. 프로젝트 수업에 나타난 어린이들의 변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악기에 매료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음악하기’에 대한 동기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악기를 직접 접한 어린이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으며 동시에 음악에 매료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프로젝트가 추구한 것이었다. 악기와 고유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는 음악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직접적인 동기유발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감을 갖으며 음악에 적응하기를 배우는 음악교육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것은 음악을 배우고 익히는데 매우 기본적이며 구체적인 중심 사항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이다.

프로젝트의 주요대상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전환된다.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참여하는 어린

이의 관점에 달려있다 해도 무방하다. 프로젝트의 첫 해에 어린이는 악기를 경험하고 시험하고 스스로 악기를 모방하여 만드는 것에 매우 큰 호기심을 보인다. 그들은 악기의 생김새, 크기, 소리에 매우 민감하며 쉽게 매료된다. 이러한 호기심의 발현은 수업과정과 수업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적 자발적 동기를 유발한다. 첫 해의 수업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 악기와 함께 하는 것
- 공동으로 악기 시험하기
- 음악하기

그 외에 어린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모조악기 만드는 것을 꼽았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악기가 소리를 내며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으며 이후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러한 첫 해의 악기와의 집중적인 교류를 통한 음악적 경험은 두 번째 해의 수업에도 긍정적인 동기유발로 작용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두 번째 해에 자신들이 원하는 악기를 비로소 갖고 집으로 가져가서 연습할 수 있는 사실에 매우 기뻐한다. 설문조사에서 92%의 어린이들이 ‘기꺼이’, ‘매우 기꺼이’ 연주한다고 답했으며 교사의 어린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좋음(1.04)¹⁴⁾’으로 높은 평가를 보여주었다(Schulten, 2007, pp. 5-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기수업에서 나타나는 높은 동기유발 효과는 프로젝트수업이 목적인 수업전환의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어린이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는 다른 음악학습 분야에도 적용되며 음악활동에 대한 기쁨은 음악수업 외의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되게 된다.

2.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

음악교육 장려 프로그램인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에게 나타난 교육적 효

14) 1이 가장 높은 점수이며 5는 최하점수, 6은 낙제점수에 해당한다.

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동반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프로젝트의 제반 음악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음악적 또는 음악 외적 발달과정이 관찰되었다.

- 첫 번째 해 - 다양한 고전 악기와 접촉하고 인식한다.

어린이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각 악기의 정확한 명칭과 소리를 구분하며 악기의 연주방식, 모양과 상태를 익힌다. 또한 어린이들은 이 과정을 거치며 특정 악기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며 악기를 결정짓는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같은 연령의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의 음악적 전문용어, 특히 악기입문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춘다. 이러한 음악과 악기에 대한 깊은 교감을 통해 어린이들은 수업과 수업 외의 시간에서 음악을 들을 때 남다른 섬세함을 나타낸다. 그 밖에도 어린이들은 새로운 악기를 접할 때 시험하려는 태도와 순차적으로 들으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미 다른 악기를 통해 배운 음악적 능력을 응용하는 발전과정에 대한 예증이 된다.

- 두 번째 해 - 악기연주 능력을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며 다소 어려운 악곡을 독주 또는 합주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맡은 악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성공적인 합주를 위해 자신의 파트를 책임지고 연주하게 되는 개인적 음악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 악기연주 능력의 발달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다른 변화

악기와 교류, 음악 그리고 음악듣기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연주능력 향상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음악경험을 통한 집중력과 자신감의 향상, 일반적인 정서의 개선, 만족감과 조화로운 행동, 공격적 행동의 감소 같은 음악 외적인 면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동반연구팀은 음악 외적인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프로젝트 음악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른 인성요인에 미치는 음악학습의 응용

효과는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음악적 또는 음악 외적 능력의 정확한 결과물은 앞으로 음악적 관심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음악활동을 통한 제반 인성교육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장래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IV. 프로젝트의 교육적 성찰

1.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선점

음악장려 프로젝트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의 성공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비판적 시각을 통해 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의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독일 음악교육가협회(Verein der deutschen Schulmusikerzieher) 회원이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음악교육가협회 회장인 린덴바움(W. Lindenbaum) 교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악잡지 ‘음악과 교육(Musik und Bildung)’에서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W. Lindenbaum, 2008, pp. 50-51).

린덴바움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수업은 자칫 학생들이 악기연주만 즐겁게 하며 즐겨하지 않는 음악 기초 이론은 악기연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2010년 까지 “루르지방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정규 음악수업 외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uettger, 2007)라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도 린덴바움 교수는 2010년까지 음악교과가 정규 교과목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 상황은 음악교과목이 예술과목으로서 미학분야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음악교육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음악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 단지 20% 만이 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라는 점을 들고 있다.

• 린덴바움 교수가 지적하는 이 밖의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토대가 초등학교 교사와 음악학교 교사의 공동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프로젝트의 공동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현재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교사 계속교육은 음악학교 교사에게만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프로젝트 수업이 정규 음악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각 지역단위의 음악학교와 초등학교 간 음악교사의 연계에 비해 실제로 학교음악교사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린덴바움 교수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까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문제제기와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악기연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어린이의 연주능력이 훗날 대학입시에서 고려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프로젝트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물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현재 300개 반의 7200명 학생들에게 적용된 프로젝트 1학년 수업에 몇 명의 학교음악교사가 참여하였나?
-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1000개의 초등학교에 210,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음악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음악교사는 어떻게 충원이 가능한가?
-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 프로젝트는 정규 음악수업과의 공동 작업을 어떤 형식으로 구상해 나갈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린덴바움 교수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음악교육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음악교육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와 같은 거시적 안목의 프로그램은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게 음악 수업’이라는 음악교육의 더 큰 과제의 일부이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2.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의 음악교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

음악장려 프로젝트로서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음악교육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독일음악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 프로젝트의 음악교육적 의미는 일반학교와 음악교육기관의 공동 작업으로 전문음악교육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프로젝트에 따른 동반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음악교육, 구체적으로 악기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음악 외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나타나는 발달과정이 악기수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과 비교해 볼 때 또는 악기수업을 받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현실적 문제점이자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학교음악교육에 대한 제도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독일은 음악학교에 의해 음악의 사교육제도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프로젝트가 마련한 음악교육 장려정책은 공교육인 학교 음악교육과 사교육인 음악학교의 악기수업의 연계를 통해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과목의 주당 시수를 증가하거나 학력평가에서 음악교과목의 비중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학교음악의 제도적 개선보다 사회 저변층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시도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는 음악에 대한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프로젝트 수업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정에 적용되는 특기적성교실의 음악관련 수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실의 수업은 저렴한 비용과 전문적인 강사진에 의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성격이 독일의 프로젝트 수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우리의 특기적성 음악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 째로 초등학교 교사의 참여가 전혀 배제된다는 점이 독일 프로젝트 음악수업과 다른 점이다. 둘째로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동반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는 점도 독일과 다른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다. 하지만 음악교육적인 관점에서 두 나라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능을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가에서 두드러진다. 즉, 프로젝트 수업은 음악교육을 평생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관에 대한 수용 또는 기대는 현재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음악교육계에서는 결여된 사항이다. 앞서 비교한 두 나라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의 표로 요약하였다.

<표 1> 독일과 우리나라의 특기적성 음악수업 비교: 유사점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
유사점	• 정규 음악수업 이외의 특정 악기 음악수업 • 음악학교 교사의 악기교습 • 학교음악실, 강당에서 수업 • 저렴한 수업료(국가의 보조) •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목	• 정규 음악수업 이외의 특정 음악 활동 프로그램 • 외부 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 학교교실에서 수업 • 저렴한 수업료(학교운영위 보조) •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목

<표 2> 독일과 우리나라의 특기적성 음악수업 비교: 차이점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
차이점	• 음악의 기초이론과 악기소개수업 • 놀이를 통한 수업 • 음악교사와 학교교사 사이의 팀수업 • 음악교육학자에 의한 학문적 연구 동반 • 음악수업의 목적: 음악 하는 즐거움 일깨우기	• 악기수업과 합창 등에서 기능발달 • 일 년에 한번 교내 행사 시 발표

우리나라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의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높지 않다.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체능 교육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 음악교육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규음악수업의 활성화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위에 소개한 프로젝트의 기본 이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에 있어서도 학교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 위상을 높임으로서 어린이와 학부모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음악교육에 있어서 악기수업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관심 또는 동경의 대상이다.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나 능력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음색을 제공한다는 특색 때문일 것이다.

학교에서 단순히 교과서의 제제곡만 배우고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가요나 광고음악만을 접한 어린이와 꾸준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꾸어 온 어린이의 문화적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은 너무나 클 것이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百年之 大計)’다. 음악교육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의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음악학교와 초등학교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이룩해 낸 성공적인 음악장려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악기를 잘 연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미시적인 음악교육의 효과보다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인성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다. 또한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음악수업을 통해 음악적 또는 음악 외적 능력의 결과물이 분명히 장래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독일의 루르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악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과는 음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악기와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한 경험으로부터 단순한 악기 연주에서 음악하기라는 예술적 행위로 발전되는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음악이라는 예술적 매체를 통해 일반 다른 사회분야의 적응능력을 습득할 수 있음을 시사 받았다.

독일 음악프로젝트가 이룩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음악을 하나의 제한된 독립적 분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그동안 학습프로그램의 한 대상으로서 형식적으로 행해지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나아가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기능위주의 음악교육(사설학원)은 이제 음악을 종합적인 인지학문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 장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실의 음악수업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행해지는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장점을 종합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의 관심은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또는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특기적성교육이 갖는 근본적인 음악교육적 효과 및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학교음악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이 독일의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 담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방과 후 특기적성교실의 음악수업이 갖는 음악교육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참 고 문 헌

- 이성울 (2005). 독일의 음악학교 운영과 문화정책. *음악연구*, 34, 341-362.
- 최유정 (2006).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조사: 대구
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한은실 (2003). 특기·적성 음악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Pressemitteilung (2007). **Jedem Kind ein Instrument**. Bochum, 30.
August 2007.
- Schulten, M. L. & Beckers, R. & Beckers, E. (2007). **Faszination
Musikinstrument-Musikmachen motiviert**. Präsentation der
Ergebnisse der Wissenschaftlichen Begleitung des Projektes
„Jedem Kind ein Instrument,,.
- Grunenberg, M. & von Gutzeit, R. (2007). Rund 600 neue Stellen für
Musikschullehrkräfte. Gespräch. *Üben und Musizieren*, Oktober/
November, 46-49.
- Rüttger, J. (2007). Sprechzettel für die Pressekonferenz zur Vorstellung
des Programms „Jedem Kind ein Instrument,, am 5. Februar
2007 im Foyer der Jahrhundertshalle in Bochum.
- Lindenbaum, W. (2007) Interview mit Manfred Grunenberg, *Musik und
Bildung*, Heft 1/08, 50/51.
- Projektinformationen from <http://www.jedemkind.de>

ABSTRACT

Die pädagogische und wissenschaftliche Bedeutung des Musikförderprogramms “Jedem Kind ein Instrument” im Ruhrgebiet in Deutschland

Chang, Eun-Un

Seit August 2003 wurde im Ruhrgebiet der Nordrhein Westfalen in Deutschland ein Musikförderungsprojekt “Jedem Kind ein Instrument” ausgeführt. Es ist ein gemeinsames Programm der Kulturstiftung des Bund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und der Zukunftsstiftung Bildung in der GLS Treuhand e. V. unter Beteiligung der Kommunen und privater Förderer. Das Projekt bietet an Grundschulkindern im Ruhrgebiet musikpädagogische Unterricht an.

Die ersten Schuljahrkinder bekommen von den Musikschulpädagogen eine spielerische Einführung in die Musik und Instrumentkunde. Musikschullehrer und Grundschullehrer unterrichten gemeinsam. Es handelt sich um Team-Teaching. In dem zweiten Schuljahr lernen die Kinder ein bestimmtes Musikinstrument in der kleinen Gruppe.

Die beteiligten Kinder faszinieren von der Musik und sie werden sich weiter in ihrem Leben mit Musik beschäftigen. Es ist eine positive Auswirkung des Projekts zu sehen. Außerdem wird das Projekt von den Musikpädagoginnen an der Universität wissenschaftlich begleitet und evaluiert.

Bis 2008 März hat das Projekt erfolgreich durchgeführt und weiter ausgedehnt. In diesem Aufsatz wird die musikpädagogische Bedeutung des Projekts untersucht und die Gemeinsamkeit der in den Musikunterricht am Nachmittag in den Grundschulen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herausgefunden und verglichen.

Key Words : music promotion program, instrumental teaching, accompany scientific research, talent and aptitude of music education

심사 날짜: 2008년 5월 29일

수정 날짜: 2008년 6월 5일